

# 북스

## Books

# 광주 등 광역시의 디자인 정체성 찾기

###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김민수 지음

대한민국 도시는 오늘도 치장 하기에 바쁘다.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된 서울 시를 비롯, 각 지자체들은 '도시 디자인'에 열중하는 중이다. 디자인비엔날레까지 개최하는 광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체로운 공공 디자인들이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고, 삭막했던 도심에 문화적 감성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시 디자인의 정체성과 방향성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의 도시 디자인의 현재 모습은 무엇이고, 추구해야 할 미래는 어떤 방향일까.

서울대 디자인학부 김민수 교수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그가 광주의 도시 디자인을 분석한 내용이나, 추진 방향에 모두 수긍할 수는 없지만 저자의 말처럼 '지방인의 한계'로 보기 보다는 '시선의 객관화'라는 점에서 판단한다면 소중한 자료로 삼을 만하다.

패섬죄로 서울대 디자인학부에서 해직된 뒤, 신문사 객원기자로 활동하며 전국의 도시를 일일이 답사하고 도시 디자인에 대한 글을 썼던 김 교수는 북적을 한 뒤에도 '도시 디자인'에 관심을 놓지 않았다. 저자가 이번엔 과년 '한국 도시 디자인 탐사-광역시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광주를 비롯해 부산·인천·울산·대구·대전 등 6대 광역시의 6대 광역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축으로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정체성을 짚어보고,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도시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 상징 디자인 등의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탐사한 책이다.

6대 광역시는 어떤 역사적 문맥과 과정에서 형성되었는가, 이런 역사는 오늘날 각 도시가 그려가고



저자가 '어릿광대 공공 디자인'이라고 혹평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작 '기원'.

있는 청사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으로 이 도시가 가꿔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전제가 됐다.

발품을 팔며 부지런하게 움직인 덕에 도시 곳곳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들을 실렸으며 특히 각종 문헌과 지도 등을 샅샅이 조사, 각 도시가 품어야 할 '정체성'에 대한 자신만의 답안을 내놓았다.

광주 이야기는 KTX를 타고 영산강 위 극락철교를 지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안타까움. 거대한 콘크리트 웅벽같은 아파트 단지 대신, 구릉 경사를 잘 살려 계단식 저층의 공동주택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면 유물이 발견된 영산강변 신창동의 역사와 경관의 운치도 살고 현대식 삶도 모두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저자가 광주 도시 디자인 문제로 '과잉 디자인'으로 꼽은 건 일견 타당해 보인다. 특히 5·18 민중항쟁 등

과거를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포장술에만 몰두한 결과가 눈에 많이 띈다고 지적한 점이나, 광주의 공공디자인을 '어릿광대'라고 표현한 점은 아픈 지적이기는 하지만 새겨들어야 한다. 일반 기업체 CI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도시 상징 디자인은 광주의 문제만은 아니다.

도심 재생 사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 도시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만 비슷한 여건의 인근 도시를 살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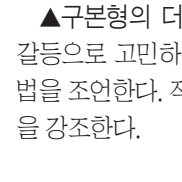
'멀티플렉스 부산', '혼합형 미인 대구', '진국의 맛을 위하여, 대전', '선사와 현대 사이, 울산' '21세기 개항장' 등 각 도시를 다룬 챕터의 제목을 보면 도시의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다. 광주를 '무등 정신, 광주'로 표현한 저자는 광주의 도시 정체성과 디자인은 절대 평등의 무등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비·3만 2천원〉  
/김민수기자 mekim@kwangju.co.kr

##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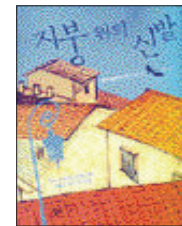
▲30대 엄마의 사교육 다이어트=180만 여성 회원이 활동하는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마이클럽'에서 출간한 육아교육서다. 불황속에도 피해 갈 수 없는 '자녀교육 전쟁', 30엄마들의 체험, 시행착오를 통해 검증된 교육 노하우를 한데 모았다. 〈봄날·9천500원〉



▲구분형의 더 보스=변화경영전문가 구분형 소장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상사와 올바른 관계 맺는 법을 조언한다. 직장생활에 있어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훌륭한 상생'을 강조한다. 〈실림출판사·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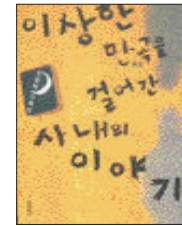
▲순수에게=언론인 손석춘씨가 순수함을 지켜 나가기를 소망하며 십대에게 건네는 열 가지 실천 명제를 담은 에세이집. 그가 제시하는 실천 명제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기성세대들에게도 순수한 꿈과 희망을 되새기게 할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세계적·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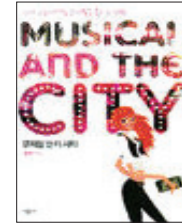
▲지붕 위의 신발=프랑스 작가 뱅상 들르르루 아 장편소설. 지붕 위에 버려진 신발 한 짝을 따라싸고 벌어지는 기발하고 기막힌 열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아하고 경쾌한 문체, 철학적 유머로 고집된 듯 연결된 현대인의 미묘한 존재를 매력적으로 포착했다. 〈창비·9천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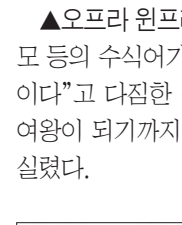
▲다윈 이후=그동안 잘못 알려졌거나 인식돼 온 '다윈의 생물관'의 원래 모습을 복원했다. 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를 넘나들며 19~20세기 정치·사회·문화의 흐름 속에서 다윈 사상이 어떻게 왜곡되고 퍼져나갔는지 그려낸다. 〈시공사·2만원〉



▲이상한 민중을 걸어간 사내의 이야기='화승' 연작으로 독보적인 소설 세계를 구축해온 민경원이 쓴 세번째 소설집이다. '복화술 듣는 저녁' 등 2002년 겨울부터 2008년 여름까지 발표된 여덟 편의 단편소설을 엮었다. 〈실천문학사·9천800원〉



▲뮤지컬 앤더 시티=뮤지컬홀릭 윤경미씨가 맘마미아 티켓과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뮤지컬의 본고장 뉴욕 브로드웨이를 누비는 활활한 공연여행 이야기다. 단순한 여행서라기 보다는 뮤지컬 제대로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양서에 가깝다. 〈시공사·1만1천원〉



▲오프라 윈프리의 최고의 삶을 말한다=흑인, 가난, 성폭행, 미혼모 등의 수식어가 붙었던 역경 속에서도 항상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고 다짐한 윈프리의 인생과 성공 이야기를 담았다. 토크쇼의 여왕이 되기까지 과정, 그녀가 창간한 잡지 'O' 이야기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코노믹스·1만1천원〉



▲사랑 그 위대한 악법=철학 모임 '소크라테스 카페'에서 거론된 '에로스'(연인에 대한 사랑)와 '스토르게'(가족에 대한 사랑), '크세니아'(낮선 이를 맞는 사랑 등 소크라테스가 평생 탐색하고 실천했던 다섯 가지 사랑의 개념을 설명한다. 〈여담·1만5천원〉

### '그날 그들은' 발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에 찾아 현대사를 돌아 볼 수 있게 하는 역사교양서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다시 가본 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을 발간했다.

마로니에 공원, 명동성당, 여의도 광장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들에 아로새겨진 기억들을 불러내 민주화운동 역사를 다시금 살펴볼게 한다.

1960년 4·19혁명이 남겨놓은 국립 4·19 민주묘지를 시작으로 1970년 전태일 분신,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사의 굵직한 굵직한 역사의 현장뿐만 아니라 '구로구청 부정선거 규탄 농성', '8·10 광주대단지 사건' 등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져 간 혹은 제대로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했던 사건의 현장도 찾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 츨스키, ... 미국을 말하다

데이비드 바사미언 인터뷰·장영준 옮김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 노엄 촘스키 미 MIT 대학 교수가 지난 2006~2007년 언론인 데이비드 바사미언과 나눈 대화를 엮은 '츨스키, 변화를 말하다'가 나왔다.

인터뷰라는 편안한 형식 속에서 촘스키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책에서 촘스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 금융 위기'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붕괴' 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이슈들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이다.

책은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날카로 고발하고 있다. 촘스키는 "국제관계

## 미국, 변화 하려면 수많은 만행 사과부터

라는 것이 마피아와 너무나 닮았다"면서 미국을 '마피아 두목'에 비유한다. 그리고 그 마피아 두목이 휘두른 곤봉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이른바 '비민주적인' 국가들의 참상을 폭로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패로 변변히 평화협상이 무산되고 있는 중동을 비롯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던 라틴아메리카, 끔찍한 폭격과 학살이 자행되었던 인도차이나반도, 에너지 생산지로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지로 전락하고 있는 아프리카 등 세계 어느 곳도 '마피아 두목'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촘스키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결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권력이 너무나 쉽게 복종하고 부화뇌동하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불복종이야말로 제 기능을 하는 민주주의를 새로 만들어 낼 수 있

다"고 역설한다. 현재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계는 미국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정말 변화하고 싶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에 대한 사과와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촘스키는 또 '중동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 유엔의 평화권고안과 세계 여론을 무시하고 평화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쪽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란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 방향은 미국이 과연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시대의 창·1만4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 RADIO

가톨릭방송, CBS, 기독교방송

080-600-1031

### TV